

# 실제적인 환경보전이 필요

임 재 영  
(경북공업사 환경관리인)

제가 살고있는 곳은 도시개발이 한창인지라,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몇 년전만 하여도 전형적인 농촌 풍경속에서 농민들이 한가롭게 농사짓는 모습은 추억으로 기록되고, 이제는 녹지공간이 고층아파트 단지로 변하고, 주변 또한 생활오염으로 자연파괴 현상이 있거나 없을까 염려되는 바이다.

지천은 서서히 오염현상이 일어나고 주변의 산 또한 생활 폐기물로 장식된다고할까, 본래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절변화를 모색하였을텐데 직접산을 찾았을때는 벌써 인간의 힘으로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이제는 누구나가 한번쯤 자연환경 보전을 생각하여 볼 문제가 된 것이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자연을 보호하는 사람 따로 있는, 이런식으로 나갈 때에는 자연보호는 한낱 캠페인으로 써 끝날것이다. 정말로 자연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지않는 한 주변 생활환경은 오염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에서는 행정상의 환경보전만을 할것이 아니라, 우선 가까운 생활주변부터 실제적인 환경보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좀더 환경보전에 관심을 보여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환경분야의 전문학자가 국회에 한 분도 진출하지 못한것도 그만큼 환경보전에 관심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당에서 직능별 국회 진출을 선정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환경분야에서는 할 말이 없다니 환경보호는 오직 환경인들만이 염려할 문제로 하락되었다고 할까(?) 정말로 관리인의 한 사람으로 쓸쓸한 마음 이루 형언 할 수 없다.

이젠 우리도 선진조국 창조라는 밝은 미래상을 펼쳐보이고 있는 현실에 온 국민 모두가 솔선수범하여서 생활환경개선과 자연보호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환경보전 없이는 그 무엇이든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 환경제반 문제와 현실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의 영위 및 생산활동에 부차적으로 수반되는 폐기물 및 오염물질은 증가의 일로를 치닫고 있으며 질적으로는 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부산물의 첨가로 환경오염의 문제는 국지적인 문제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50만년전 원시인의 출범 이래 인간의 활동은 자연의 파괴에서 생활의 영위라는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나 자연은 자체순환과정에서의 파괴에 대한 자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공업의 발달에 의한 끊임없는 자연의 이용·개발은 자연의 자정능력의 한계에 영향을 미치며, 20세기에 이르러 급속한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구의 증가, 도시화의 가속화, 산업활동의 확대는 자연의 이용·개발의 범위를 넘어 파괴로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계속되는 인간의 환경파괴행위는 인간 생활의 터전을 위태로운 지경으로 변질시켜 멀지않은 장래에 인간 생활의 기반마저 파괴시키게 될 환경 위기의식이 팽배하게 되었으며, 국가에 대해서도 국민이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로써 좋은 환경의 확보를 요구하는 환경권의 개념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경권의 대두는 국가 기본정책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환경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오는 생태론적 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